

요 르 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7

I. 일반개황

면적	89천 km ²	G D P	387억 달러 (2016년)
인구	7.0백만 명 (2016년)	1인당 GDP	5,538달러 (2016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Jordanian Dinar (JD)
대외정책	친미 노선	환율(달러당)	0.71 (2016년 평균)

- 아라비아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요르단은 한반도의 1/2 규모의 국토와 약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운송,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발달하여 에너지, 생필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외 경기에 민감함.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입헌군주국이지만 국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1999년 즉위한 Abdullah 국왕은 군부와 대다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2011년 초 중동 민주화 혁명 당시에 요르단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였으나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정부는 평화시위를 보장하며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였음.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역내 정정불안 및 저유가로 인한 아랍 국가들의 경제 악화의 영향으로 2%대 저성장 지속

○ 요르단 경제는 시리아 내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침공 등 인접국들의 분쟁 발생과 저유가로 인한 아랍 국가들의 경제 악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침체한 결과(2017년 총수출규모는 2014년 대비 10% 감소할 전망) 최근 수년간 2%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치고 있음.

- 2014년 IS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몇몇 지역을 장악한 이후 요르단-이라크 국경이 폐쇄됨에 따라 이라크와의 국경무역이 차단되면서 매일 1만 대 이상의 중고차 수출을 포함한 對이라크 수출이 급감하는 등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받고 있음.

- 역내 정정불안과 테러 위협 고조는 관광객 유입에 타격을 끼쳐 GDP의 약 10%를 점유하는 관광 부문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리아로 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은 사회불안 고조와 난민 지원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 저유가 추세 지속이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들에 취업하고 있는 요르단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도 감소하여 (2017년 경상이전수취 규모는 2013년 대비 23% 감소할 전망)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만, 요르단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보험, 부동산 등 서비스 산업 및 내수 부문의 성장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2.3%를 기록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보조금 감축 및 세율 인상 등으로 개선

- 요르단은 산업 발전이 미진하고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2년 유류보조금 폐지, 2013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인상, 2014년 전력 보조금 추가 삭감, 2016년 차량이전세율 인상 등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절감 노력의 결과 2013년 -11.5%에서 2017년 -2.5%로 현저히 개선되었음.
- 현재 재정적자 보전은 GCC 회원국들로부터의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 2014년 6월 24일 발행한 1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유로본드(미국 정부가 보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IMF 등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총부채(총외채+국내순부채) 규모가 증가하여 2017년 GDP의 9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중해지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량 및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승세로 전환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각종 보조금의 삭감 및 폐지 등 물가상승 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에 힘입어 2013년 4.8%에서 2014년 2.9%로 낮아진 데 이어 2015년 -0.9%, 2016년 -0.8%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7년에는 식량 및 에너지 국제가격이 완만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요르단 정부도 전기·수도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ⁱ
경 제 성 장 률	2.8	3.1	2.4	2.0	2.3
재 정 수 지 / G D P	-11.5	-10.0	-4.1	-3.4	-2.5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4.8	2.9	-0.9	-0.8	3.3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부존자원이 미미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경제구조

- 요르단은 인광석, 가성칼리 등 일부 광물 외에 현재 생산 중인 부존 자원이 거의 없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이라크·시리아로 중계무역을 통해 수출하는 구조였으나, 동 국가의 내전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재수출이 난항을 겪음
 - 2017년 8월 30일 요르단 및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내 IS 격퇴로 국경 지역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무역적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부동산, 관광, 운송 등 서비스업이 GDP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주로 섬유, 비료, 화학원료 등 원자재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그 외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등은 수입에 의존함. 농업 생산량도 미미해 국내 식료품 수요량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2015년): 서비스업(66.2%), 제조업(29.6%), 농업(4.2%)

□ 취약한 제조업 기반 및 관광산업 타격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 젊은 인구층은 늘어나고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접국의 정정불안으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2016년 요르단의 실업률은 15.3%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요르단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무역 구조상 수입비중이 높아 제품 판매직 및 서비스 직종이 취업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높은 실업률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IMF의 권고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임.
 - 요르단의 공공부채는 2017년 기준 GDP의 약 96% 규모임. 취약한 제조업 기반의 경제로 증가하는 대외부채 규모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레반트 지역 중계무역의 거점, 역내 물류 허브 구축

- 요르단은 레반트* 지역 중심에 위치하여, 홍해 연안의 Aqaba 항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을 커버하는 서부 중동 지역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서중동 지역을 일컫는 지명

- 이라크, 사우디,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과 정치 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정치·사회적 환경도 주변국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개방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있음.

- 요르단, 이라크 정부가 2017년 8월 30일 양국간의 국경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라크에서 요르단 남부 아카바로 연결하는 원유공급 송유관 연결 프로젝트가 재추진 될 것으로 보임.

- 동 국경은 이라크 지역 내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이라크 남부 국경지역을 장악하면서 2014년 6월 잠정 폐쇄 되었으나,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 및 남부지역에 대한 치안이 안정화되면서 정상화됨.

□ 비산유국 요르단, 오일셰일 발전소 건립 추진

- 최근의 탐사작업 결과 약 310억 톤의 셰일오일(shale oil)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2017년 3월 요르단 내 최초로 셰일오일 발전소 건립이 추진됨.

- 위치는 요르단 암만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Attarat Um Ghudran 지역으로, 오일셰일 가스는 요르단에 약 310억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력 발전소는 2020년 건설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요르단의 풍부한 오일셰일 매장량을 상업적으로 최초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비산유국인 요르단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화를 계획하고 있음.

□ 대외개방적 경제체제와 양질의 노동력 보유

- 요르단 정부는 부존자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대외교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대외개방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30세 미만의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양호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 정책성과

□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의 추진

- IMF는 비대한 공공부문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 이에 요르단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각 부문에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국영 정유 회사(JOPETROL), 국영 통신공사, 칼륨개발공사, 인광개발공사, 국영 항공사, 우정국 등이 민영화되었음.
- 전력 부문의 경우 NEPCO(국영전력공사)는 현재 송전만 담당하며, 발전과 배전은 모두 민영화됨. 단, 발전기업인 중앙전력공사(CEGCO)는 요르단 정부가 49%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시리아, 이라크 난민의 유입으로 요르단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87%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수도 암만의 인구는 174% 이상 증가하였음. 이런 증가 추세에 현재 암만의 인프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요르단 정부는 2017년 10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함.
-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수도 암만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 39km²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1차 계획임. 전체 신도시 프로젝트 규모는 총 390km²으로 2050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임.
- 동 프로젝트로 인해 요르단 건설시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요르단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 중임.

□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요르단 정부는 자본 및 기술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하여,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EU, EFTA(유럽자유무역지대), 싱가포르, 터키 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음.
- 요르단은 앞서 1997년 아랍연맹 회원국들로 구성된 대아랍자유무역지대(GAFTA)에도 가입하였음.
- 또한 대미관세면제특구(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및 Aqaba 경제특구(Aqaba Special Economic Zone), 산업개발구역, King Hussein Business Park, Irbid 개발구역 등을 조성하는 등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FDI 유입액은 2013년 19억 달러, 2014년 2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IS 사태로 인한 주변국 정정불안 및 저유가 지속에 따른 GCC 산유국들로부터의 FDI 유입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15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연도별 FDI 유입(억 달러) : 19('13) → 21('14) → 16('15) → 15('16)

□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전략(2007~20) 추진

- 시리아, 이라크 난민의 유입으로 요르단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요르단은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려고 노력 중임.
- 요르단 정부는 2007년 전체 에너지원의 57%를 차지하는 석유 및 석유 부산물의 비중을 2020년까지 47%로 감축하고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국내산 셰일오일 화력발전의 비중을 2020년까지 각각 6%, 10%, 14%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원자력 발전의 경우 1,000MW급 원자력 발전소 1기(2018년 완공 목표)의 건설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할 계획임.

- 아울러 풍력발전과 태양열 발전에 의한 전력생산량을 2020년까지 각각 1,200MW와 600MW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Al-Harir 풍력발전소(200MW)와 Wadi Araba 풍력발전소(45MW) 및 Shams Ma'an 태양열 발전소(200MW)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임.
- 요르단 정부는 이외에도 Aqaba LNG 터미널 건설(2015년 개통 완료), 이라크-요르단 간 송유관 건설, 세일오일 생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공급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 추진

- 요르단은 IMF의 권고에 따라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지속한 결과 GDP 대비 재정적자 수준은 2013년 11.5%에서 2017년 2.5%까지 감소될 전망이다.
- 2012년 각료 인원 감축과 독립 공공기관 예산 15% 감축 및 유류보조금 폐지, 2013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인상 및 일부 공공기관 통폐합, 2014년 전력 보조금 추가 삭감, 2016년 차량 이전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였음.

□ 10개년 경제개발계획 "Jordan 2025"의 추진

- 요르단 정부는 자원 부족(비산유국, 물 부족), 제조업 기반 취약, 주변국 정세 혼란 등으로 인한 요르단 경제 저성장의 덫을 끊기 위해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은 '원칙에 따른 운영'(rule of law), '기회 균등'(equal opportunity), '재정의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 '경제적 자립'(self-sufficiency)을 4대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 세부 달성목표로는 2025년까지 최고 7%대의 연간 경제성장 달성, 빈곤층 비율 하락('14년 14% → '25년 8%), 실업률 하락('25년 10% 미만 수준), 에너지 자급률 제고('14년 2% → '25년 39%), 여성의 노동참여율 향상(15% → 24%),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감소('14년 82.3% → '25년 47.4%)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르단 경제의 특성상 역내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이 동 계획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금법 신설

- 요르단 정부는 2016년 5월 기간산업을 포함,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활성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금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의 적용 대상 기업 및 기관은 관세, 판매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음.
- 국가 철도망 및 송유관 건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력망 연결, 레저 용도 부동산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 대외거래

□ 높은 수입의존도 및 역내 정정불안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에너지와 식료품의 과도한 대외의존은 물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높은 수입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요르단은 연료 및 식료품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여, 경상수지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2013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인광석 생산 감소, 대외원조 수취액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0.4%에 이르렀으나, 이후 관광수입 회복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연료 및 식료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동 비중이 2014년 -7.3%로 개선되었음.
- 2017년에는 연료 및 식료품의 수입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역내 정정불안으로 인한 인접국들과의 교역 중단에 따른 수출 감소, 저유가 지속에 따른 GCC 국가들의 경기 둔화로 인한 경상이전수지 흑자 감소(이들 국가에 취업하고 있는 요르단인 해외근로자들로부터의 외화송금 감소) 등으로 인해 동 비율이 -9.4%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D.S.R, 단기외채잔액비중 등 외채관련 지표는 미흡

- 외환보유액은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 등에 힘입어 2015년 말 151.6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7.6개월분)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및 주변국 정정불안으로 인한 FDI 감소*로 인해 145.8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FDI 유입(억 달러) : 19('13) → 21('14) → 16('15) → 15('16)

- D.S.R은 2013년 말 9.5%에서 총외채잔액 증가와 총수출의 감소 추세 전환(2015년) 등으로 인해 2015년 말 21.9%로 급등하였으며, 2017년 말에도 21.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방국의 양허성 차관 및 IMF의 차관 지원 등으로 총외채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3년 128.3%에서 2017년 171.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도 78.5%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IMF의 대기성차관(SBA) 및 확대신용공여(EFF) 지원 계속

- 요르단 정부는 2012년 8월 IMF로부터 지원받은 3년 간에 걸친 2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SBA) 지원을 2015년 8월 다시 3년 간 연장받은 데 이어, 2016년 8월 24일 IMF로부터 3년 만기 7억 2,300만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EFF)를 추가 지원받았음.
- IMF는 현재 요르단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EFF 제공의 조건으로 동 비율을 77%까지 낮추고 사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 미국과 대출보증협약 체결

- 요르단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과 대출보증협약을 체결, 향후 7년 간 국채 12.5억 달러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졌음.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ⁱ
경 상 수 지	-3,504	-2,608	-3,406	-3,606	-3,802
경 상 수 지 / G D P	-10.4	-7.3	-9.1	-9.3	-9.4
상 품 수 지	-11,648	-11,966	-10,333	-9,523	-9,931
수 출	7,913	8,385	7,833	7,509	7,697
수 입	19,561	20,351	18,166	17,032	17,628
외 환 보 유 액	13,224	15,300	15,162	14,019	14,580
총 외 채 잔 액	23,391	24,839	26,250	27,221	29,018
총 외 채 잔 액 / G D P	69.5	69.2	69.9	70.3	71.8
D S R	9.5	17.1	21.9	18.8	21.8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복잡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 유지

- "아랍의 봄" 및 최근 시리아, 이라크, IS 사태 등 주변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Abdullah 국왕의 통치하에 안정된 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개혁 등이 꾸준히 진행 중임.
 - 요르단은 국왕이 외교, 국방, 행정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국왕은 군부와 정보기관 수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대법관과 상원의원까지 정부/의회의 승인 없이 임명할 수 있음.
- 1999년 즉위한 Abdullah 국왕은 군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패 척결, 행정 투명성 증대, 금융제도 개선 등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요르단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팔레스타인계 이주민에 대한 차별)와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보수주의 세력의 반대 등이 개혁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정당이 친국왕, 친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소속

정당도 수시로 변경되고, 다수가 무소속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어 정당의 역할이 아직 제한적인 편이나, 무슬림형제단의 정당인 이슬람행동전선(IAF)은 상대적으로 높은 결집력을 보이고 있으며(2016년 9월 총선에서 하원 130석 중 16석을 차지하여 단일 정파로서는 최대 의석 확보),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2016년 6월 Hani Mulki 총리가 임명되어 경제 문제 해결 노력 지속

- 2016년 6월 새로 임명된 Mulki 총리는 난민 사태, 주변국과의 국경 폐쇄 등으로 정부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물가상승률, 실업률이 악화됨에 따라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9월 총선이후 Mulki 총리의 2기 내각이 출범하면서 총리를 포함한 30명의 장관 중 20명이 유임,10명이 신임되었음. 새로운 내각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별도로 임명됐으며, 이 외에 교육부, 외교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로 임명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물가 상승 및 생활고로 인한 사회불안요인 상존

- 중동 국가들에 공통된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수혜 조건인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보조금 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을 추진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고 가중으로 사회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Abdullah 국왕은 헌법 및 선거법 등 정치개혁을 비롯해 내각교체,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한 민심수습으로 신임을 얻고 있음. 정치·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암만과 지방에서 발생했으나, 타 중동국가에서와는 달리 시위가 확대, 과격화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한 채로 마무리되었음.

□ 인접국들로부터의 지속적인 난민 유입으로 사회불안 가중

- 인접국들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내전 또는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등 물가가 상승하고 보건, 교육, 범죄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12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급증한 시리아 난민은 2016년 기준 126만명(UNHCR 등록 기준 약 65만 명)으로 요르단 인구의 18%에 육박하고 있음.

□ 토착 요르단인과 팔레스타인계 주민간의 갈등 상존

- 요르단 강 동안(East Bank)에 거주하는 토착 요르단인은 전체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왕과 군부-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권력을 장악해 옴.
- 1948년 이후 요르단으로 유입된 팔레스타인계 주민들 및 그 2세대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난민 신분이며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토착 주민과 팔레스타인계 주민간 입장 차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요구도 양극화되어 정치개혁의 방향 설정 및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왕 주도의 정치 개혁 프로그램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IAF가 주도하는 도시 하층민의 시위는 정치 자유화, 정부기구의 대표성 강화 및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면, 토착 요르단인들은 제도적 특권 유지,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공공 부문 현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임.

3. 국제 관계

□ 친서방 노선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아랍국가

- 요르단은 온건 아랍세력의 대변자로 친미·친서방 정책과 함께 주변 아랍 국가와의 관계도 중시하는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 중동평화협상의 핵심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중임.

- 요르단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전통적 중립 외교노선에서 친미 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슬람과 서방 간의 대립 해소를 위해 '온건 이슬람 운동'을 추진하고 이라크 재건사업 및 전(全)지구적 차원의 개혁·발전과 관련해 국제회의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6.6억 달러(경제지원 3.6억 달러, 군사지원 3억 달러)를 정기 지원하는 최대 원조국으로, 2013년 7월 시리아 난민 수용 등 지역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17년 동안 요르단에 3.4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추가 지원, 총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미국은 대출보증을 통해 요르단 정부의 15억 달러 규모 국채 발행을 지원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요르단을 지원하고 있음.

□ 주변 중동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리비아, 이집트, 예멘 등 주변 지역의 정정불안이 가중되고 테러 세력이 준동하고 있어,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회원국은 같은 수니파 출신 국왕이 통치하는 요르단에 대한 원조를 통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여러 차례의 리스케줄링 경험

○ 요르단은 파리클럽과 1989~99년 중 5차례에 걸쳐 총 8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상환을 연기하였으며, 재정적자가 지속되자 2005년에 또다시 총 외채의 17%를 2007년까지 상환 연기한 바 있음.

○ 2017년 6월 현재 OECD 회원국 ECA들에 대한 연체금액은 중장기 채무 4,440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약 6.2억 달러, 수입은 기타 석유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약 5천만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9월 말 기준 신규법인 수 24건, 총투자금액 2,054만 달러에 불과함. 그러나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음.
- 한국전력은 2013년 1월 요르단 광물에너지자원부가 발주한 발전용량 89.1MW 규모의 Fujeij 풍력발전소(총사업비 1.9억 달러) 프로젝트의 건설운영사업자(BOO 방식)로 선정되었음. 동 프로젝트는 오는 2018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임.
 - 한국전력은 이미 요르단 국내에서 Al Qatrana 복합화력발전소(발전용량 373MW)와 Amman 디젤화력발전소(발전용량 573MW)를 운영하고 있음.
- 2014년 3월에는 한화건설이 요르단 최초의 MW급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인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공사대금 2,400만 달러) 건설을 수주, 금년 8월 발전소 건설 및 검수를 마치고 본격 가동을 개시하였음.
- 2015년에는 남부발전-대림에너지 컨소시엄이 발전용량 49.5MW 규모의 Tafila 풍력발전 IPP 프로젝트(총사업비 1.2억 달러)를 수주하였음. 동 프로젝트는 2017년 착공될 예정이며, 2019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표 4 >

한·요르단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1~11	주요 품목
수 출	849	620	610	자동차 및 그 부품
수 입	78	49	65	기타석유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요르단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시리아 내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침공 등 인접국들의 분쟁 발생과 저유가로 인한 아랍 국가 경제의 악영향으로 수출이 침체한 결과 2%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에 그치고 있음.
- 요르단은 부존자원이 미미하고 산업기반이 약하여 연료 및 식료품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탐사작업 결과 약 310억 톤의 셰일오일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요르단 내 최초로 셰일오일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요르단 정부도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등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Abdullah 국왕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토착 요르단인 세력과 팔레스타인계 주민 간의 갈등으로 정치 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변화의 정도가 미진하며, 잇따른 보조금 폐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음.
- 요르단은 온건 아랍 세력의 대변자로 친미·친서방 정책과 함께 주변 아랍 국가와의 관계도 중시하는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 중동 평화협상의 핵심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임. 이라크 전쟁 이후 전통적 중립 외교노선에서 친미 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슬람과 서방 간의 대립 해소를 위해 '온건 이슬람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과거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최근 IMF 등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증가로 인해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D.S.R이 2013년 10%대에서 2017년 22%로 급등하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도 79%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외채관련 지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책임조사역 김희원 (☎02-3779-5720)
E-mail: kheewon@koreaexim.go.kr